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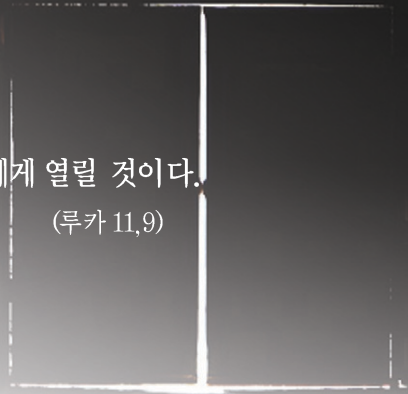
대구주보

연중 제17주일

2010. 7. 25. (다해) | 제1685호



請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索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扞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루카 11,9)



오늘의미사

입당송

하느님은 거룩한 거처에 계시네. 하느님은 외로운 이들, 한 집에 살게 하시고, 당신 백성에게 힘과 권능을 주시네.

제1독서 창세 18,20-32

화답송

◎ 주님,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은 응답하셨나이다.

제2독서 콜로 2,12-14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는 성령을 받아 하느님의 자녀 되었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하느님께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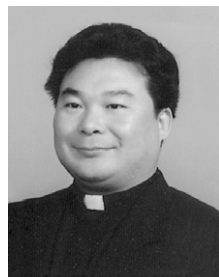
◎ 알렐루야.

복음 루카 11,1-13

영성체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우리는 하느님께 무엇을 청하는가?



이성역 타대오 신부
황성성당 주임

신자들 중에는 성직자 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육체적인 편안과 물질적이고 덧없는 복을 하느님께 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재물 그리고 권력을 하느님께 청합니다. 또한 하느님께 항구함과 신뢰심이 없이 말로나 혀로만 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요술 지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느님께 열심히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꼭 자신의 청을 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마음과 정성으로 하느님과 대화를 통하여 하느님을 뜻을 찾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에 앞서 우선적으로 찾아야 할 것은 하느님의 나라와 의로움을 찾아야 합니다. “하느님께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으시오. 그러면 다른 것들도 다 곁들여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 6,33). 따라서 우리가 하느님께 제일 먼저 청해야 할 보화는 하느님의 나라와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먼저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고 아버지 하느님께서 들어주시리라고 믿고 청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전지전능한 힘과 거룩하심이 이 땅에 드러나도록 청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통치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나라가 오도록 청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영육의 양식을 청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 하느님께 우리 모두가 구원되기 위해 서로를 용서하고 또 하느님께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청하라고 하십니다. 하느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유혹

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청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그리고 진실하게 청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서는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본성이 남을 도와주기를 좋아하지 않는 인간이라도 졸라대는데 못 이겨 결국 조르는 그 사람에게 도움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신자들 중에서는 30일 기도, 100일 기도를 합니다. 청하는 사람은 청하는데 지쳐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지치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청은 받아들여져 문이 열리고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더욱 더 충실히 기도를 해 나아가야 합니다. 항구하고 변함없는 기도는 사람을 하느님께 일치시키고 자신을 의롭게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아버지 하느님께 청하면 꼭 받을 것이고, 찾으면 얻고, 두드리면 꼭 아버지께서 문을 열어 주실 것이라고 하시면서, 아버지 하느님께서 꼭 들어주시리라고 믿고 청하라고 하십니다.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국 기도할 때 항구한 마음과 신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악하면서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선하신 하느님께서야 당신 자녀에게 가장 귀한 선물인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께 성령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성령을 청하면 반드시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주님의 기도의 청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하느님과 하느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할 것이며, 협조자 성령의 도움 없이는 죄와 유혹에 빠져서 구원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 할 때에 기도의 맛을 알고, 신앙의 기쁨과 행복을 알 수 있습니다. 



■ 교구설정 100주년 준비위원회

대구대교구 산하기관 6
- 사회복지시설 -

전광진 엘마노 신부 / 교구 사목기획 실장

천주교대구대교구는 교구산하에 여러 사회복지 법인을 통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구사회복지사업의 실무를 맡은 부서가 교구사회복지회이고 사회복지국장은 장효원신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유형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무의탁복지, 의료복지, 구라사업, 장애인복지, 지역복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아동복지시설에는 가톨릭소화어린이집(대명동 656-0561, 상인동 632-1792), 감나무골 나눔과 섬김의 집(대현2동 953-5550), 꿈나무어린이집(남산4길 252-0655), 대구가톨릭대학교 부설어린이집(경산시진량읍 856-2033), 동명어린이집(칠곡군동명면 976-6857), 백합어린이집(남산3동 256-6862), 자인어린이집(경산시자인면 856-8641), 시립 진량어린이집(경산시진량읍 857-2205), 큰별어린이집(이곡동 581-4168), 한국SOS어린이마을(검사동 983-3154), SOS청소년생활관(엘마의 집 985-9409), SOS아동보호센터(아동 일시 보호시설로 만촌1동에 위치, 756-7348) 등이 있습니다.

② 청소년복지시설에는 가톨릭푸름터(구 가톨릭여자기술원으로 황금2동에 위치 764-8537), 검사동SOS자립생활관(982-9936), 삼덕동SOS자립생활관(427-9659),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경북군위군에 위치 054-382-2834), 수지의 집(가출소녀쉼터로 범어3동에 위치 741-3122) 등이 있습니다.

③ 노인복지시설에는 구미노인복지센터(054-

472-5060), 고령성가의 집(054-954-1824), 김천노인복지센터(054-439-0162),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054-435-6340, 중앙노인복지센터 054-435-6340, 문화의 집 054-435-3723), 대구가톨릭치매센터(달성군논공읍에 위치, 부설마리아의 집 616-2141), 분도노인마을(칠곡군왜관읍 054-976-7575), 성가양로원(칠곡군동명면에 위치 054-976-8122), 성가요양원(칠곡군동명면 054-976-8236), 성가어르신복지센터(칠곡군동명면 054-976-8123), 성모자애원햇빛마을(포항에 위치한 노인전문요양원 054-274-7744), 시메온의 집(달성군논공읍에 위치한 노인전문요양원 615-2601), 성바오로 안나의 집(군위군부계면 054-382-1634), 성심요양원(구미시선산을 054-481-3289), 성심노인복지센터(구미시선산을 054-481-7074), 월명성모의 집노인복지주택(김천시남면 054-434-2898), 월명성모의 집노인전문요양원(김천시남면 054-435-8122), 월명성모의 집노인복지센터(김천시남면 054-435-4034), 파티마노인복지센터(성주군금수면 054-932-5522), 나자렛노인전문요양원(영천시화산면 054-334-2006), SOS프란치스카의 집(검사동 986-2077), 서구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전담, 평리4동에 위치 563-1025) 등이 있습니다.

④ 여성복지시설에는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구미시원평동 054-456-9494), 대구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남산3동 253-1401), 대구가톨릭여성의 집(모자일시보호시설로 국번없이 1366) 등이 있습니다.

생명에 대하여 ③ 생명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교구 사목국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생명의 복음'(Evangelium Vitae)'을 중심으로」


1. 우리 교회는 생명을 신성(神聖)하게 여깁니다.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느님이시며 오직 하느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생명은 신성합니다.(55항). “생명의 시작에서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느님만이 그 주인이시다. 어느 누구도, 어떤 상황에서도, 무죄한 인간을 직접적으로 파괴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53항). 따라서 인간 생명과 죽음은 하느님 손에, 그분의 권능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사람의 생사를 쥐고 계시어, 지하에 떨어뜨리기도 하시며 끌어올리기도 하시는 분”(1사무 2,6)이요, “죽이는 것도 나요 살리는 것도 나다”(신명 32, 39)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39항). 그러므로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죽이는 일은 월권행위요, 하느님을 모독(冒渎)하는 일입니다. 제5계명을 거슬러 온갖 종류의 살인, 집단학살, 낙태, 안락사, 고의적인 자살과 같이 생명 자체를 거역하는 모든 행위와 [...], 또 이와 비슷한 다른 모든 행위는 문명을 손상시키는 행위이며 불의를 자행하는 사람을 더럽히는 행위로서 창조주께 대한 극도의 모욕입니다.(3항).

2. 교회는 낙태(落胎)를 단죄합니다.

임태된 생명을 쓸모없는 생명이라고 간주하거나, 또는 참을 수 없는 짐으로 생각하며 이런 저런 방식

으로 그런 생명을 거부하는 '생명에 대한 음모'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낙태는 분명 '살인하지 말라'는 하느님의 계명을 직접적으로 침해는

악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13항). “생명은 그 수태되는 순간부터 성심껏 보호되어야 한다. 낙태와 유아 살해는 가증할 죄악이다”(62항). “난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아버지의 것도 어머니의 것도 아닌, 새로운 사람의 한 생명이 시작된다. 그것은 그 자신의 성장을 가지는 한 새로운 사람의 생명인 것이다. 만일 그것이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면 결코 그것이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 현대 유전학은 이 자명한 불변의 원리를 확인해 준다. 이 생명체가 자라나서 충분히 독자적인 특징을 지닌 한 사람이 될 프로그램이, 수태되는 첫 순간부터 수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유전학은 증명해 주었다.” 따라서 생명은 수태되는 그 순간부터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태되는
그 순간부터 존중
되어야 하는 것

계속 두드려 보!

박성규 엘리시오





영성의 향기

:: 기쁨과 감사와 기도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신앙인 개인 간의 사적인 차원에서만 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오로 사도가 '기쁨과 감사와 기도' 이 권고를 하기 전에 얼마나 공동체 교우들의 관계를 강조하였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 공동체와의 관계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도 이러한 바오로 사도의 '감사' 의 태도가 살아나야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서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다면 정말 복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좋은 현상을 두고, 시기심이나 피해의식을 가지지 않고, 은총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께 감사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훨씬 더 기쁘게 변해 갈 것입니다. '감사' 에 관한 바오로 사도의 정신은 미사의 '감사송' 의 시작 기도 부분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 감사함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우리들의 도리임을 잊지 않길 바라 봅니다.

짧은 글 - 깊은 생각

아프리카에서 온 편지



1999년 8월 아프리카 기니의 수도 코나크리를 출발하여 벨기에의 브뤼셀에 도착한 비행기 화물칸에서 공공 열어붙은 흑인소년의 주검 두 구가 발견되었습니다. 14세, 15세의 두 소년은 유럽에 밀입국하려다가 매우 높은 고도에서의 영하 50도나 되는 저온상태 비행으로 인해 동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처음 본 브뤼셀 국영항공사 직원들은 손에 쥐어져 있던 프랑스어 편지를 보고 이들의 밀입국 의도를 알게 되었는데 간절한 그들의 염원이 담겨 있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편지에는 기니의 소년 야킨고이타와 포드투르카나라는 이름이 있었고, 수신인의 이름에는 유럽의 지도자들이라고 써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유럽의 지도자 여러분, 저희 둘의 험난한 여행과 고통의 목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프리카 어린이들은 지금 너무나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전쟁과 전염병에 시달리며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학교 건물은 있지만 선생님 과 책이 없어 공부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과 자녀에 대한 사랑을 저희에게 조금만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저희들이 죽어서 발견되거든 우리가 겪고 있는 전쟁과 참상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려 했던 뜻을 헤아려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식을 접한 루이 미셀 벨기에 외무장관은 감동 어린 편지를 유럽 각국에 보내 소년들의 소망을 이루는데 동참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 가운데 하나인 기니의 두 소년의 시신은 부모들의 품으로 돌아갔으나 그들의 유언은 유럽 전 세계에 아직도 울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가난과 고통에 대한 해결은 단순한 생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함께 해야 할 의무입니다."

- 울겨온 글입니다. -

■ 시노드 마당

“본당 공동체” (2)

임석환 스테파노 신부 / 교구 시노드 사무국장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소공동체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의견이 극명하게 갈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반 모임의 소공동체화가 **과연 소공동체 활동인가**라는 점입니다.

셋째, 진정한 소공동체 운동의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과 교육을 통한 **본당 차원의 노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넷째, 사제 인사이동에 따른 **사목 계획 일관성의 결여**를 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소공동체는 소공동체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본당 사목구조를 필요로 하는데, 이를 위한 본당 구조 개편에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산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여섯째, 확립화된 소공동체 운동이 **여타 신심활동의 위축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는 본당 중심의 한 단체라는 잘못된 이해의 소공동체 운동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곱째, 교회의 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강력한 성직자의 의지로 추진되어 **평신도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로 이어지지 못한** 점입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형 소공동체의 가능성이 내포하고 있는 개념과 의미의 혼동이라든지, 구조화되지 못한 소공동체의 대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속인주의식의 소공동체가 과연 소공동체로써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 등이 남아 있습니다.

소공동체 운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많은

분들은 소공동체 운동이야말로 곧 미래 교회의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또한 많은 분들로부터 소공동체 운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현 상황에 맞지 않는 모델이라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7-8년 동안의 성과로 과연 소공동체 운동을 평가할 수 있는지, 소공동체에 대해 이해 부족의 결과인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인지 깊이 있게 연구 논의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당사목의 일관성

“본당 사목방침과 계획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설계하고 이에 따라 매년 시행되어야 할 사목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단계적이고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당 사목계획이 설계되고 실천되어야 하는 점. 교구 발전을 위해 교구에서 제시되는 교구 사목방침과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일선의 각 본당사목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워 나가야 한다.

각 본당의 실정과 예결산현황, 신자현황 등을 고려하고, 이에 따라 본당공동체의 생활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현실성 있으면서도 미래의 본당상을 만들어 나가는 본당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당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실천함에 있어서 도중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이때에는 미리미리 검토하여 계획을 수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의견은 제1차 시노드 때에 대의원들이 건의한 사항이고, 이에 대하여 교구장 교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본당 사목평의회에서는 매년 사목 계획을 세우

고 실천 후 반드시 평가를 한다면 본당 신부의 이동으로 본당 사목 전반이 바뀌는 혼란은 없어질 것입니다. 사목 계획실시 도중에 본당 신부가 바뀌어도 사목의 일관성을 위해서 이미 수립된 계획대로 추진하고, 시급히 변경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사목 평의회 논의의 논의를 거쳐 부분적으로 서서히 변경할 것입니다.”

평신도 재교육의 필요성과 방안

선교 3세기를 맞는 한국교회는 양적으로는 많은 발전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숙제는 영적 성숙을 위한 평신도교육의 활성화 방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날 교회가 과연 세상을 복음화하고 있는가? 라고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물질주의사상의 팽배, 과학만능사상, 쾌락주의 만연으로 사회 복음화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아직도 유교사상, 불교사상, 민속신앙의 특수성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평신도 재교육이 더욱 요청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한국교회의 바람직한 평신도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마르



1,15)

는 그리

스도의 말씀

대로 현세주의에서 벗

어나 성숙한 성인교회를 만드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유교, 불교와 달리 우리교회는 기복적 신앙사상을 탈피하는 평신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신도는 능동적인 자세로 교회에 참여하고 성직자에게 종속된 관념을 탈피하고 자주적 관념을 가져야 하며, 율법주의 사상에서 생동하는 자기성화로 생활태도를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주의에서 공동체 신앙인으로 변화하고 공로주의에서 사명의식으로 변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평신도 재교육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노드 홈페이지 <http://synod.dgca.or.kr>

주보 알림 게재 - 신청 방법 변경 안내

전화와 팩스를 이용하여 주보 알림 게재를 접수 받던 기존 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대구대교구 홈페이지(www.dgca.or.kr)에 회원 가입을 하시고, 오른쪽 하단 대구주보 보기 배너를 통해서 주보 알림 게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주보에 게재된 광고업체를 이용하시는데 불편한 점이 있으면 편집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T: 250-3052)

100주년 기념대성전 설계 지명업체 안내
※ 설계공모에 참여한 업체와 경기에 지명된 업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 모인행사 ★

교구 스테인드글래스연구소 봉헌 기념전
• 일시: 7.11(일)~31(토) 10:00~17:00
• 장소: 영천시대창면신광리(81(금호본당신광공소))
• 문의: 054-332-4300(연구소)/017-521-0070(원동수신부)

김원조(라우렌시오) 신부님 은경축
• 일시: 8.8(일) 15:00
• 1부: 감사미사, 2부: 축하식, 3부: 축하연
• 장소 및 문의: 성요셉 성당 634-9591

제13회 창작생활성이 경연대회
• 예선심사: 9.30(목), 본선: 11.13(토) 19:00
• 문의: 대구대교구 제3대교구청 사무실 634-0653
※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 참조바랍니다.

★ 피정 ★

예수의 까리따스 수녀회 성소모임 말씀피정
• 일시: 8.6(금)~8(일), 장소: 양평수녀원
• 문의: 010-2568-5231

말씀 피정 'Ad Sum'
• 일시: 8.20(금) 18:00~22(일) 15:00
• 장소: 군위소보동지(회비:3만원)
• 대상: 20세 이상 미혼여성
• 신청: 다음카페 luxamor486
• 문의: 010-9056-9005, 마감: 8.16(일)

마음을 더 가볍게 하는 2박3일 치유피정
• 일시: 8.13(금) 13:00~15(일)
• 장소: 마리아 피정센터(부산시 남구 우암2동)
• 강사: 최봉도 F.하비에르 신부
• 피정비: 11만원 부산045-01-0375520, 제티없으신
• 문의 및 접수: 051-634-0228 / 011-9503-0228

젊은이 침묵 피정
• 일시: 8.7(토) 16:00~8(일) 16:00

• 장소: 진주 본원 (작은자매관상선교회, 작은형제관상선교회)
• 대상: 미혼 남녀, 준비물: 성경, 세면도구
• 문의: 055-752-7665

★ 성소 모임 ★
예수의꽃동네형제회, 자매회 성소모임
• 일시: 8.8(일) 14:00~17:00
• 장소: 서울사무실, 대상: 대학~35세미만
• 문의: 011-464-1265

★ 교육 모집 ★
성체신심세미나(010-51493-1819)
• 일시: 8.2(월)~4(수), 한티피정의집
• 내용: 성체현시, 조배, 참회예절, 면담성사, 안수
• 강사신부: 이홍근(마오로)하성호(사도요한) 송재준(마르코)서덕교(야고보)정기모(요한보스코)
• 주관: 대구대교구 지속적인조배회
※ 지난주 20일로 공지된 날짜를 2일로 바로 잡습니다.

8월 영어성경 공부반 모집
• 화요일: 8.3(화) 10:00~12:00 코린토전서, 신명기
• 목요일: 8.5(목) 10:00~12:00 창세기, 마태오복음
• 문의: 관덕정 254-0151 / 010-2578-5535(월2만원)

제30차 수도생활체험학교
• 일시: 8.5(목)~8(일)
• 장소: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 대상: 고등학교 2년이상~만32세이하의 미혼 남녀(신청순 50명)
• 문의: 054-970-2000 / 010-8353-2323

제2차 성경을 통한 선교학교
• 일시: 8.26(목)~11.4(목) 10주간
오전반: 10:00, 오후반: 19:30
• 장소: 교구청 내 교육원 나동 4층 대회의실
• 대상: 모든 레지오 단원

청년 재속프란치스코회원 모집
• 자격: 만35세 이하 가톨릭신자
• 봉헌식: 8.28(토) 14:00

• 장소: 월배 프란치스코수도원 경당
• 문의: 632-9800 / 010-7503-8852

적은돈으로 큰돈 버는 대가대 부동산경매 재테크 과정
• 개강: 9월 중 8주 과정(수,목)
1:1멘토링교육, 무료재수강 가능
•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 감삼동캠퍼스
• 문의: 568-9800 / 010-4161-4443

5차원전면교육 몽골여행체험순
• 일시: 8.7(토)~14(토)
• 대상: 초·중·고·대학생 및 일반인/가족
• 문의: 010-3883-7004(داum, cafe 우아칭참조)
• 주관: '우아칭' 청소년영성의집살레시오수녀회

2010 가톨릭적 대안교육 연수회
• 일시: 8.14(토)~15(일) 1박2일
• 장소: 양업고등학교 토마스관
• 대상: 교사, 학부모, 대안교육관계자
• 문의: 043-260-5076(http://yangeob.hs.kr/)
※ 2011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안내(일정표 참조)

★ 채용 공고 및 안내 ★
월배성당 사무직원 모집(계약직)
• 자격: PC 활용 가능한 자, 마감: 7.30(금)
• 제출서류: 교적사본, 자필이력서, 자기소개서
• 제출 및 문의: 월배성당 636-1302

동인천주교회 신협 임시직원 모집(3개월 계약)
• 근무기간: 9월 중순 ~ 12월 중순 예정
• 제출서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경력증명서
오순절평화의마음 후원회미사

• 일시: 7.26(월) 11:00
• 장소: 고산성당
• 내용: 고해성사, 미사, 안수
• 문의: 051-782-0765

안전하고 편안한 귀가, 가톨릭 호출이 있습니다.
• 053-551-1004(오오 하느님 천사)

미사	일시	장소	미사	일시	장소
구미지역 밀알후원회 미사	7월 26일(월) 오전11시	도량성당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7월 27일(화) 오후 2시	성도당
4대리구 포항지역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7월 26일(월) 오전11시	죽도성당	바논의 성모님 기도회 및 미사	7월 29일(목) 오후 2시	성도당
군중후원회 미사	7월 26일(월) 오전11시	계산주교좌성당	공소후원회 미사	7월 31일(토) 오전11시	남산성당

이시우 신경외과
http://척추외과
척추 내시경, 핵미경레이저 디스크 수술.
(척추수술 5,000례 시술)
내당역 3번출구 앞 반고개에 위치.
T.652-0119 / 이시우(요한)

카리타스 요양센터
Caritas LONG TERM CARE CENTER
주간보호·방문요양·방문목욕서비스
1577-9913 / 636-5567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요양보호사교육원
053255-7222, 구구형(성모당)세 교육원 가평층

라식, 백내장수술 전문안과
대구 연세안과
iFS아이리식, 백내장, 노안수술
의 학 박 사 현연세대의료교수 원장 박 중 원 (소시무)
(지하철1호선 영대병원역 2번출구)
상담전화 626-8881~5

MRI·MDCT 대구 제일 방사선과의원
소장 전영진(바오로)
TEL. 053)756-0161

가정, 사무실, 관공서, 해외, 이사전문
로젠이사
LOGEN 로젠이사 (대구본부)
전국화물용달취급 대표: 서정원(프랜차이즈)
www.logen2424.co.kr
T.754-6688 H.P.010-9516-5511

자금성
중국리권광전문서당
늘 처음처럼... 최고급 재료만을 고집합니다.
2007ISO9001-2000 품질관리인증업소
☎ 767-6700
•수성구 황금동 국민은행 옆
정경숙(스텔라) 황기철(요한)

약손 척추 교정원
디스크·비만·신경통
근골격계, 신경계질환
지압, 교정, 자세, 체질검사
29년 전통 이 루카 425-7695
대구역 옆 라이프 상가 245-1호
www.m-hand.co.kr

365 병원
HOSPITAL 삼육오
관절경 인공관절 수술전문병원
위치:비산대거리구 정상여상맞은편
☎ 053)720-0320, 720-0365
원장 우병철 안도니오
원장 안혁수 베네딕도